

광주시-전남도 합의...광주공항 국제선 존치될까

# 건교부 “지역여론 감안 내달초 결정”

## 무안공항은 예정대로 내달 8일 개항

25일 광주시와 전남도가 '내년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개통시까지 광주공항 국제선 존치'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건설교통부의 수용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건교부는 오는 11월 8일 무안국제공항 개항식을 갖고 바로 다음날인 9일부터 광주공항 국제선 비행을 무안공항에서 이착륙하도록 서울지방항공청에 통보한 상태다. 시·도지사간 합의사항의 실현여부가 건교부로 넘어간 것이다.

◇건교부 시·도 합의 받아들일까=건교부는 일단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건교부 관계자는 25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광주공항 국제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한다는 건교부의 기존 입장에서 바뀐 것은 없다”면서 “다만 시·도 지사가 광주공항 국제선 존치를 건의한 만큼 26일 광주를 방문, 지역여론을 청취하겠다”고 밝혔다. 원칙적으로는 광주공항 국제선 무안 이전이지만 '광주 여론 청취 후 재논의' 입장을 밝힌 것이다.

건교부가 시·도지사간 합의대로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공항 이관을 내년 6월로 예정된 광주~무안간 고속도로 완공시까지 연기할 지는 현재로서 불투명하다. 더구나 개항을 불과 10여일 앞둔 시간적으로 너무 촉박한 데다 서울항공청과 항공사 등에 이미 노선 변경이 통보된 상태에서 국가기관의 신뢰성 과도 직결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나 광역단체장인 시·도지사가 양측의 이해관계가 걸린 현안에 대해 잠정적이거나 합의를 이뤄낸 의미를 쉽게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응섭 건교부 장관이 다음주 광주지역 국회의원, 언론인들과 연쇄 면담을 갖고 지역여론 청취에 나서는 것도 예사롭지 않은 행보다.

◇개항은 예정대로=오는 11월 8일

무안공항 개항을 앞두고 광주공항 존치 문제라는 돌발변수가 떠올랐지만 개항식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25일 무안공항에서는 최종 종합시험운영이 성공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실제 여객기가 무안공항 이·착륙을 통해 기능을 최종 확인했다.

또 국제선 출발과 도착을 위한 세관·출입국·검역 절차도 순조롭게 처리돼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에 전혀 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개항 초기 무안공항은=무안공항은 개항과 함께 오는 11월 9일부터 기존의 광주공항 국제선과 무안~베이징(아시아나) 주 2회, 무안~창사(남방항공) 주 2회, 무안~상하이(동방항공) 주 7회를 운항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광주공항 국제선이 제외되고 현재 계획중인 국제노선만으로 무안국제공항이 운영됐을 때는 시설용량에 크게 미치지 못해 신규노선 개발이 무안공항 활성화를 위한 급선무로 떠올랐다. /박지경기자 unipark@kwangju.co.kr



무안국제공항 최종 운영 시험일인 25일 가상 승객으로 참여한 무안 현경고등학교 학생과 공무원들이 공항 청사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무안공항=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이용섭 건교부장관 인터뷰

이용섭(사진) 건설교통부 장관이 무안국제공항의 개항과 맞물린 광주공항 국제선 존치 주장에 대해 원론적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25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광주공항의 국제선 유지 주장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대목도 있으나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광주-전남지역의 발전을 생각해야 한다”며 광주공항 국제선 존치에 대해 일단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 장관은 “광주-전남지역의 여론 등을 감안해 관련 부처 등과 협의해 최종 방안을 내놓겠다”며 광주공항 국제선 존치 가능성을 열어 두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박관태 광주시장과 박준영 전남지사가 광주공항 국제선 일단 존치하고 무안공항을 개항한다는 데 원칙적인 합의를 했는데.



## “시·도지사 합의 존중...관계부처 조율”

▲지난 24일 박준영 지사와 박관태 시장과 통화했다. 박 지사와 박 시장은 광주~무안 간 고속도로가 완공되지 않은데다 광주공항 국제선의 무안공항 이전은 전북과 전남 동부권 등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에 대한 건교부의 입장은 뭔가.  
▲관계 부처와 논의를 통해 다음달 초 최종 입장을 밝히겠다.  
—그렇다면, 광주공항 국제선 존치 가능성이 있는가.

▲지금 가능성을 따진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보다 포괄적으로 광주-전남지역의 여론을 듣는 한편, 부처 내의 의견을 종합하는 과정을 거쳐겠다는 것이다.

—무안국제공항 개항과 관련, 이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다.

▲무안국제공항 건설 사업은 10년 전에 시작된 사업이다. 그러나 개항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해 다소 당혹스럽다. 광주공항의 국제선 노선은 중국과 일부 동남아 국가 등을 상대로 한 관광 노선이다. 국제선 존치에 집착하기보다는 광주의 발전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위원회 정몽구 명예위원장이 24일 칠레 등 중남미 국가 최고위 인사와 BIE 회원국 대표들을 미국 마이애미로 초청, 박람회 유치활동을 펼쳤다. 왼쪽부터 오현섭 여수시장, 호세 아바유 기아차 칠레대리점 사장, 정몽구 회장, 안드레스 살디바르 칠레 상원의원, 국회 유치특위 서갑원 의원. (기아차 제공)

## “운명 가를 한 달” 막판 유치 총력

### 여수엑스포 유치 결정 D-30



다음달 27일로 예정된 2012 세계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이 한 달 앞두고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유럽지역 BIE(세계박람회기구) 회원국과 신규 회원국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이들 국가를 방문하고 득표전략을 제정하는 등 막바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경쟁국인 모로코가 BIE 회원국이 가장 많이 속해 있는 유럽과 '이슬람 형제 국가'가 있는 아프리카 및 중동지역 국가들을 집중 공략하는 등 최근 들어 세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긴장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다.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는 경쟁국인 모로코와 폴란드를 한국이 다소 앞서고 있는 유치를 안심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특히 모로코는 이슬람과 아프리카권 최초의 박람회 개최국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국왕이 직접 유치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상대적 열세인 폴란드 역시 EU(유럽연합)의 공동지지 확보방안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어 한국의 절대적인 우세를 속단할 수 없는 상태다.

### 여수 박빙 우위속 모로코 맹추격

전남도는 이와 관련, 현재 108개 BIE회원국 중 가장 많은 36개 국가가 속해 있는 유럽권에서는 아직까지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곳이 많다는 점에서 이들 유럽의 부동표를 얼마나 끌어들이느냐가 박람회 유치의 관건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예초 98개였던 BIE회원국이 108개로 증가했으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들 신규 회원국의 지지를 확보하는 문제도 승부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다음달 27일 파리 총회 1차 투표에서 한국이 BIE회원국 2/3의 찬성을 얻어 곧바로 개최지로

선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1차 투표에서 탈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폴란드의 지지표를 얼마나 한국 지지표로 흡수하느냐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람회 유치전이 이처럼 치열해짐에 따라 정부와 전남도, 여수시는 앞으로 남은 30일 동안 아시아와 중남미 등 한국에 우호적인 국가의 지지를 다지는 동시에 2차 결선투표에 대비, 1차 탈락국 지지표 흡수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 유럽·신규 회원국 공략에 주력

박준영 전남도지사는 이를 위해 오는 11월 11일부터 17일까지 말레이시아와 팔라우,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3개국을 방문, 고위 인사 면담 등을 통해 여수박람회에 대한 지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같은 달 21일부터는 BIE 총회가 열리는 프랑스 파리로 날아가 박람회 개최지 결정일인 27일까지 현지에서 머물면서 파리주재 BIE 회원국 대사 및 대표 초청 문화행사에 참석하는 등 다양한 득표활동을 전개한다. 박람회 유치 투표일에는 파리 현지에서 전남도 내 22개 시·군 대표와 전남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00명의 응원단이 길거리 응원에 나설 계획이다.

여수시 역시 2010년 세계박람회 유치 실패의 아픔을 또다시 겪지 않기 위해 유치 활동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오현섭 시장은 지난 22일부터 내달 5일까지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를 돌며 박람회 유치에 열심이고 있다. 이번 방문에는 현 기아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동행하고, 그룹 현지 관계자들도 직접 나서 BIE 회원국 관계자와 기업 대표들을 상대로 여수의 박람회 개최 당위성을 알리고 있다. 여수시는 또 11월 27일 파리 현지에서 여수 유치를 응원할 '국민 서포터스' 300명을 모집한다. '국민 서포터스'에게는 1인당 40만 원을 지원해주고 전세계로 제공할 계획이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 경석현 유럽명품갤러리

## OPEN

서울신원동 명품기구를 광주급노르드 옮겼습니다.

**OPEN 이벤트**

1. 기념 특가판매
2. 구매고객에게 시은품 증정

3층: 유럽 명품가구

2층: 유럽 명품가구

1층: 명품가구

명품가구

명품가구

명품가구

명품가구

명품가구

명품가구

경석현 유럽명품갤러리

062-515-8045